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
제34권 19호(가해) 2014.4.6

[묵상]



‘라자로의 부활’
<지오토, 14c>

풀밭 위에 하루살이 형제가 날고 있었다.

풀밭 속에는 개구리 형제가 졸고 있었다.

한낮에 졸고 있는 개구리 형제를 내려다보며 아우 하루살이가 말했다.

"형, 우리도 조금만 쉬었다 날아요." 그러나 형 하루살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는 쉬고 있을 틈이 없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곧 희망의 그 순간이다."

아우 하루살이가 물었다. "지금이 희망의 그 순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요?"

형 하루살이가 대답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명이 짧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다, 삶은 짧거나 긴 기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생애 얼마나 열심이었느냐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저기 저 개구리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는가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저 개구리들은 약도 없는 죽을병에 걸린 것 같다." "그 병이 무엇인데요?"

"알고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것, 바로 그 병이다."

형 하루살이가 아우와 어깨동무를 하고서 날며 말했다.

"아우야, 희망은 움직이지 않으면 곰팡이 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이 말을 명심하거라."

풀밭 속에 잠들어 있는 개구리 형제를 향해 뱀이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석돈 요셉 & 광명희 마리아 (생) 김지수 보나 & 김지애 크리스티나
주 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황주호 요셉, 고준희 제임스, 한삼만 요셉, 전시웅 요한, 남건우, 이용식 베드로, 이명자 로사, 홍정순 세실리아, 주용범 아브라함, 이덕철 루카 (생) 정은경 그레이스, 민석준 토마스 & 미애 가정, & 민영준 마르코, 송호창 요셉 & 전하현 마리아 가정, 배태임 안나, 송기철 루카,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오 마우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Ezekiel) 37,12-14

화답송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8-11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 음 요한(John) 11,1-4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49	149	149
봉헌	264	261	255
성체	291	291	279
파견	401	158	156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 '평생 동정성', '무죄한 잉태', 그리고 '승천' 등의 모든 특권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에 기꺼이 응답하신 신앙의 여인이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성모 마리아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고(요한 2,1-12 참조),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셨다.

성모 마리아의 이런 모범적 신앙에는 어둠이 없지 않았다. 교부들, 특히 오리게네스는 시메온이 마리아께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어둠'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였다. 성모 마리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결단이라는 길을 통하여 신앙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된다. 이 점을 '교회 현장'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신적 모성의 은혜와 임무로 구세주이신 아드님과 일치되시고, 당신의 탁월한 은총과 임무로 교회와도 밀접히 결합되어 계신다. 이미 암브로시오 성인이 가르친 대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의 영역에서 천주의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전형이시다."

그러므로 성모 공경은 '교회 현장'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지체들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독특한 품위에 근거하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신다."

셋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의 동반자이시다.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함께하셨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각별히 현신적인 동반자이셨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현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수난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교회 현장, 61항). <◆계속>

라자로아, 나오너라.

가난하지만 정의감 넘치는 법학도 라스폴리니코프가 전당포 주인 노파와 전당포에 일을 보러온 노파의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과 돈을 착취하는 노파가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기에 없애버린 것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머리로의 자신의 행동이 옳았노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던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에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하는 듯 싶더니, 급기야 경찰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보다 그를 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그 앞에 자기희생의 삶을 살던 창녀 소나가 나타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경을 읽고 있던 소나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나가 읽고 있던 성경은 그가 살해한 노파의 동생이 그녀에게 준 것이었고, 그 때 읽던 성경 대목이 바로 오늘 복음말씀인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중 일부입니다.

작가는 소설 속 주인공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대목에서 왜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 순간 그 자신도 죽었다는 강한 자의식을 내비치는 한편,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 그 또한 부활할 수 있으리라는 영감도 함께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라는 부름과 함께 “살인범아, 네 아집과 편견, 불안과 공포를 떨쳐 버리고, 네 잘못을 고

백하고 용서를 빌어라.”라는 내면의 소리에 굴복하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 속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는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당신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는 암시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의 죽음, 정신의 죽음입니다. 내가 매일 범하고 있는 죄악들, 나의 온갖 악습과 사악한 욕심들, 목을 조르듯 나를 옴아매고 있는 갖가지 굴레들, 제힘으로는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내 안의 더러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며 정신의 죽음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한 채 재 배속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 이기심과 탐욕이 난무하며, 윤리와 도덕이 땅에 파묻히고, 인정과 사랑이 메달라 버린 사회 또한 죽음의 사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라자로의 무덤처럼, 이미 죽어버린 정신과 영혼이 묻혀있는 무덤과도 같은 사회인 셈입니다.

자신마저 속이며 애써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채 절망과 죽음의 나락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나에게로 나오너. 내가 너를 무덤에서 구해줄 것이다!

◆차원석 신부 /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정광미 프란체스카	경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사순제5주일인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가 참여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진행은 제단체가 맡습니다.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1일) : 대건회
- 성 금요일(4월18일 오후 3시) : 본당 신부님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4월9일(수)

- 참회예절 : 저녁미사 없이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분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미사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7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본당신부님께서 부활 판공성사판계로 타성당으로 출장 가십니다. 평일 저녁미사중 4월8일(화), 4월10일(목) 저녁미사 시간이 아침 9시로 임시 변경되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4월20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4월13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 ◆ LA 대교구 성유 축성미사(Chrism Mass)

- 일시 : 4월14일(월) 오후 7시(사제서품약속갱신식 함께)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555 Temple St.(+ Grand Av.) LA 90012
- 미사 주례 : 호세 고메스 대주교님

- ◆ 백삼위신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 일시 : 4월20일(부활대축일)~5월4일(주일), 강당
- 작품내용 : 수채화, 유화, 묵화, 사진작품, 서예 등
- 작품제출 일자 : 4월19일(토) 오후 1시, 강당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2014년 백삼위 한인성당 여성피정

- 일시 : 5월3(토) 신심미사후 오전 9시45분~오후 2시
- 주제 :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부제 : 봉사자의 자세, 행복한 삶)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오마우라 수녀님
- 대상 : 백삼위 한인성당 모든 여성교우
- 주관 : 소공동체, 성모회, 안나회
- 회비 : \$10(점심, 간식제공) * 신청서 : 사무실 비치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권순길 세실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 예비자 교리반 모집중입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 4월30일까지
- 환영식 :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6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주일학교(3학년/8학년 스파게티)
- 4월13일(주일) : P.V. 3반(짜장밥 \$3)
* 주일학교(7학년 짜장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인모	구자운	국세찬	권오상	김병조	김상근
	김 욱	김철민	나경흠	박정자	박종열	박진수
	서성용	신순철	신현화	오일순	유희연	육근주
	이병우	이원형	장수창	장영진	전정자	정남형
	정동호	정열모	최길주	최이원	최재영	
	한길선례					
합계 : \$3,015						
주일미사 헌금 : \$2,802						

성전헌금	장인모	구자운	국세찬	권오상	김병조	김 욱
	김철민	나경흠	서성용	신순철	유희연	이병우
	이원형	정남형	정동호	정열모	최길주	최이원
	최재영	한길선례				
합계 : \$1,805						
감사헌금 : \$200(한기찬 배기엽)						

공지사항

◆ 주일학교 '집자의 길' (아외14처)

- 오늘주일(6일) : 유치부, 1, 2 학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 루카복음(영어), 노트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한국학교 한글단어 경시대회 만점자 25명에 상장수여

- 지난 30일 주일 백삼위 전체 한국학교 학생이 참여한 한글단어 경시대회에서 만점자가 25명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 시상식 : 오늘 주일(6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중

◆ LA 한국교육원 교사연수에 백삼위교사 3명 참석

- 참가교사 : 김기숙 엘리사벳, 최은애 클라라, 이선민 마리아
- 4월한달동안(3일~29일) 토런스 조은한국학교에서 연수중
- 백삼위한국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분 모집합니다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10명만 더 신청할 수 있음)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릴리더 ☎(310)709-334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 성당 제20기 커피교육

- 일시 : 4월6일(주일) 오후 6시, 7일(월) 오후 1시
- 교육방법 : 강의 후 30회 실습 * 수강료 : \$200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버몬트 + 아담스)
- 문의 : ☎(323)731-4433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신청받습니다.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시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식사비 포함) *마감 : 4월22일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회신 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남가주 전 신자 ● 내용 : 찬미, 미사, 특강, 안수
- 회비 : 무료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데레사 328-0847 4/12(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701-9262 4/12(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1(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4/12(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4/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4/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신성주 엘리사벳 968-8280 4/12(토) 오후 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4/16(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40 4/11(금) 십자가의 길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서성용 베드로 800-3709 4/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잔나 804-7645	이행자 리드비나 804-7645 4/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213-700-6983 4/12(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4/11(금) 십자가의 길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관영 레오 818-1799 4/5(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88 4/8(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나이듦’에 대하여

헤밍웨이(E. M.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외로운 바다에서 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담대한 용기와 인내를 보여준다. 노인은 희망, 삶에 대한 강한 의지, 패배를 모르는 용맹함,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연민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상징한다.

인간은 삶을 지속하는 동안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를 숨 쉬게 하는 공기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노화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매일, 매시간 노화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에 대한 미련과 열정을 쉽게 잠재우지 않는다.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라는 엘리엇(T. S. Eliot)의 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 요동치는 생명력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안타깝게 표현했고, 버지니아 울프(A. V. Woolf)는 모든 만물이 되살아나는 봄, 자신의 미약한 존재에 대해 가장 우울해했다. 생명의 힘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능선을 따라 내려갈 때, 한 번쯤은 성공적 늙어감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노인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노인은 힘없고 연약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노인은 백발과 지혜의 소유자로 존경의 대상자가 많다. 노인을 단순히 힘없는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둘째,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일없이 쉬는 분들은 일부분이다. 아이를 돌보고, 가정과 지역 사회를 가꾸고 있다. 단지 일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거의 없는 부문에 종사할 뿐이지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개인으로 넘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책무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단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이 사회적 문제화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픈케 세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하느님이 내리신 네 번째 계명처럼 부모(어른)를 공경하되, 단순하고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죽을 때까지의 자립, 자기결정권을 감안한 존경방식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정해놓은 잣대와 다른 시각으로 ‘나이듦’을 고찰

해 본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노 후는 분명 지금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한정원 베로니카 /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

수난 감실은 왜 마련하나요?

☞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에서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미사의 마침 예식을 생략한 채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여 다른 장소에 성체를 모시는 예식을 합니다. 성체를 별도의 장소에 모시게 되면 그곳에서 성체 조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체를 보관하는 장소를 ‘수난 감실’이라 부릅니다. 수난 감실 앞에서 행하는 밤중 성체조배는 성체성사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수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묵상 시간을 많이 배려함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 수난 당일인 성금요일이 되므로 장엄한 예식을 하지 않기를 교회는 권하고 있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스마트폰 게임에 너무 집착...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인데, 요즘 스마트 폰 게임에 너무 집착하는것 같아 고민입니다.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그런지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 중독성을 띄는 행위나 물질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온종일 수업을 듣고 공부해도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용돈이 오르지 않거나 칭찬이 계속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 속 세상에서는 게임을 마칠 때마다 점수나 레벨을 통해 투자한 만큼의 ‘보상’이 바로 주어집니다. 또한, 휴대전화 게임은 집이나 피시방에 갈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실행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참기가 어렵습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게임에 더욱 몰두하게 하며, 오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게 합니다. 고교졸업반이라면 특히, 장시간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부는 즉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서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게임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은 그 자체로 중독성이 높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을 많이 느낄 때 게임을 참기가 더 어렵습니다. 게임 외에 스트레스 해소 및 만족스러운 보상이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